



창립30주년을 맞아 제작한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30년사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회원들의 성원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단법인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회장 이수창)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구립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대연회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2013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기념사를 하는 이수창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



환영사를 하는 신우철
창립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신우철 창립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30년간 회원들이 협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는 서른살의 생일을 맞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준 원로 회원, 역대 회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창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3번이나 흘렀음에도 협회가 곳곳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회원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30주년 기념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함께 준비했다. 오늘 행사가 회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가한 회원에게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30년사를 배부해 회원들이 협회의 30년 역사와 추억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지금의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한 전임회장과 지부장, 30주년기념 행사위원장, 30년사 편찬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30년사 집필인, FESPA 아시아대사 임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로패

전임회장 : 박태현, 이창엽, 윤동성, 임송수, 김두훈, 신지철, 임원빈, 박동립, 이기훈, 신우철

지부장 : 신재호, 류근수, 정상용, 김혁진, 박병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 : 강진수

<30년사> 편찬위원장 : 박대현

감사패

<30년사> 집필인 : 신지철

FESPA 아시아대사 임원 : Anders Nilsson

일본 스크린인쇄잡지 대표 : 고치야 아키노부

최다임원상 : 신창호, 정영식, 박형기

현 임원 추천상 : 류창수, 양왕석

회원사로서 오래된 업체 : 중앙회 인쇄(한화미, 삼성프린텍), 중앙회 기자재(동방화공, 한일상사), 부산지부(국일명판사, 대창스크린), 대구지부(영진아스텍, 광명특수인쇄, 한국특수인쇄), 경남지부(황해당인판사, 선명사), 광주지부(삼성광고산업, 세진특수), 대전지부(대신실크인쇄, 구상프린텍)